

발표자료

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

- 2010. 5 -

Powered by

WPS Office

목 차



I.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

II.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

III. 정책과제



I.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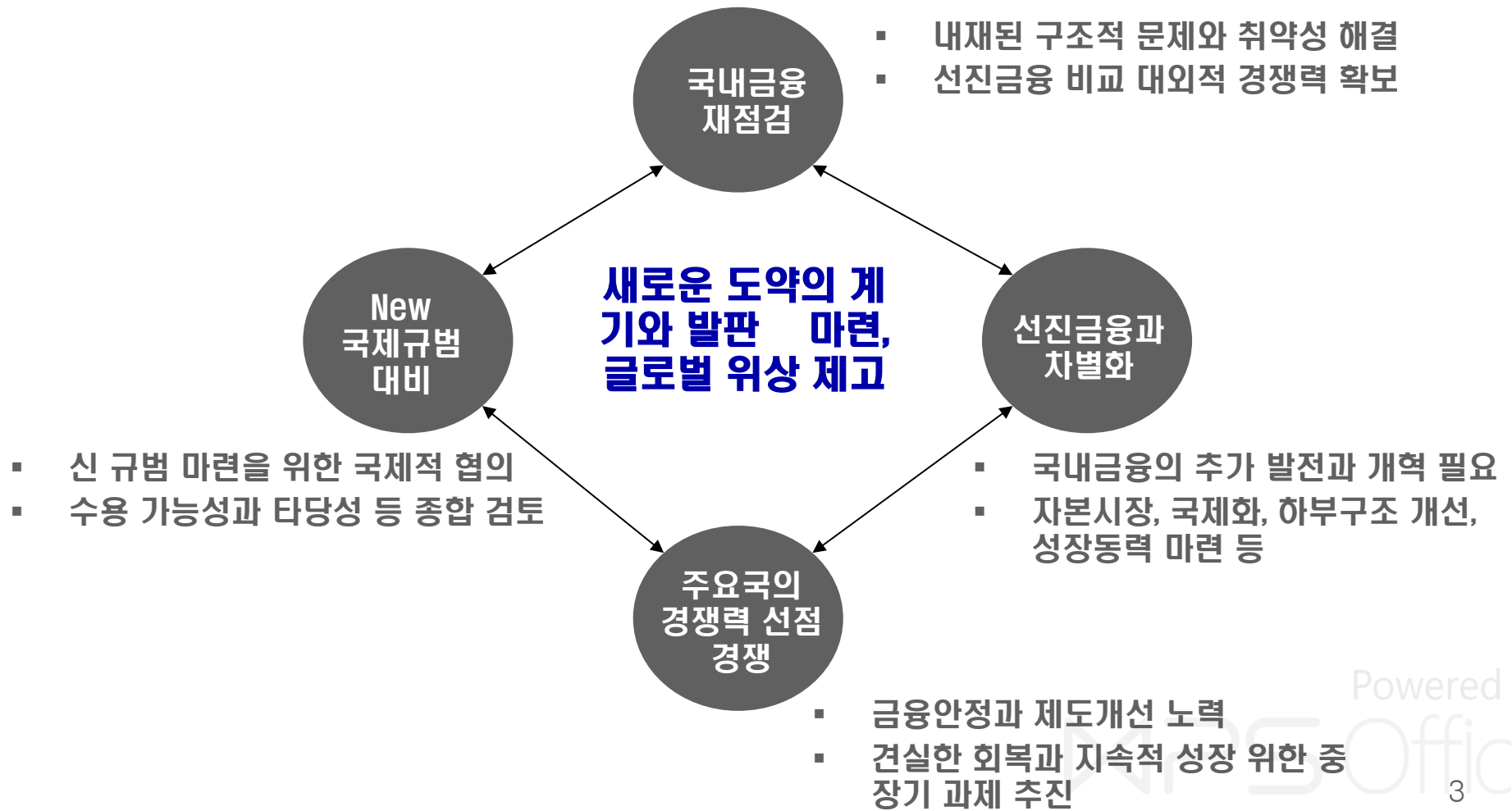
II.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

III. 정책과제

1. 논의의 배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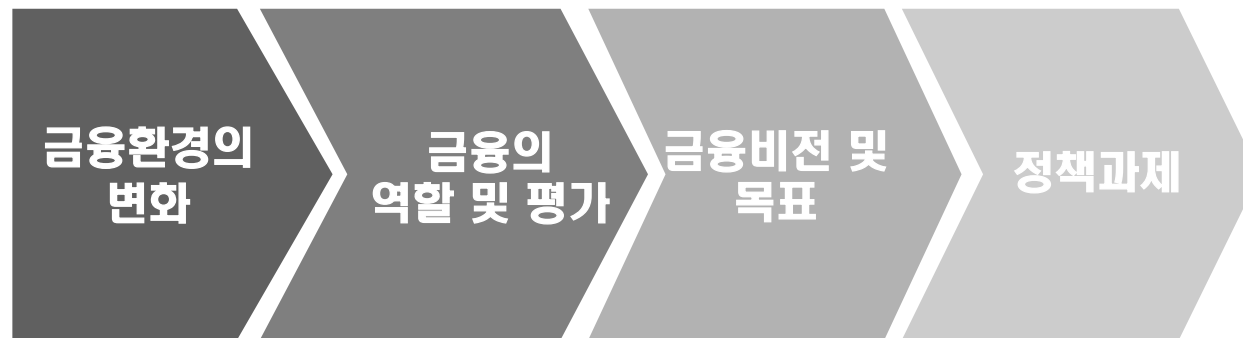
◆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회복국면에 들어선 시점에서 위기 이후 국내금융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



1. 논의의 배경(계속)



◆ 한국금융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제시



글로벌 금융시장 변화와 SWOT 분석

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방향

안정성 확보 위한 정책 및 제도 과제

시장 및 인프라 선진화 위한 방안

2. 금융위기의 원인과 시사점



◆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파악과 개선 노력 지속

원인

과잉유동성

+

글로벌 불균형

+

규제/감독 취약

시사점

금융개혁 청사진 제시(미국, 영국, EU 등)

글로벌 금융감독정책 제시 (G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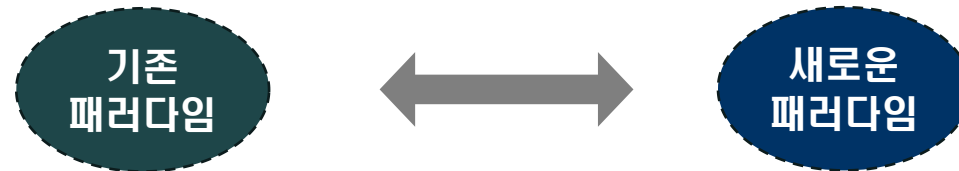
비상조치를 시장자율로 회귀

재정건전성 회복 문제 부각

3.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전망 : 금융패러다임 변화



- ◆ 금융패러다임은 시장경제 원리의 한계점 노정에 따른 금융규제 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와 금융시장 흐름의 근본적인 변화로 집약



- 자율성 확대
- 규제완화 중심
- 대형화, 겸업화, 글로벌화 중시

- 정부 역할 강조
- 시스템리스크, 거시건전성 감독 및 규제 강화
- 안정적 성장 중시

3.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전망 : 글로벌 금융시장



◆ 글로벌 규제 · 감독, 시장, 산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전망됨.

규제 및 감독

- 규제 강화
 - 성장세 둔화
- 위험평가 및 관리 강화
 - 개별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
 - 금융시스템 위험의 관리강화
→ 투명성 및 표준화
- 규제차익 감소
 - 금융시스템 영향 고려로 금융권역간 규제차익 축소
 - G20 등 글로벌 공조 강화로 국가간 규제차익 해소

금융시장

- 선진국과 신흥시장 차별화
 - 동아시아 지역의 위상 제고
- 대형화 · 겸업화 추세 약화
 - 대형금융회사 규제 강화
(상업은행의 IB업무 등)
-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 -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
 -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

금융산업

- 은행
 - 상업은행의 영향력 확대
 - 리스크 관리 강화
 - 예수금 기반 확대
- 금융투자업
 - 수익성 및 영향력 감소
 - 소형투자은행의 성장
 - 헤지 · 사모펀드의 투명성 강화
- 보험
 - 변액보험시장 위축
 - 재난 · 장수위험 시장 확대
 - 수익다변화 추진

3. 금융환경의 변화 및 전망 : 국내 금융시장



◆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여건변화와 함께 특수한 금융흐름도 존재

고객수요의 다양화

- 고객별 수요의 다양성 충족
 - 소매고객의 상품 다양화
 - 기업고객의 고부가가치 서비스
- 노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확대
 - 연금·보험 수요 증대
 - 장기채권형·해외투자 활성화
- 녹색금융 시장의 구축
- 시민금융의 활성화

글로벌화의 진전

- 새로운 성장 기회의 추구
- 선진시장 이외에 인접국가와 [동아시아] 연계성 강화
- 금융자산의 해외투자 증가

겸업화·대형화 · 규제완화 진전

-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화·겸업화 지속
- 자본시장 관련 규제의 글로벌 갭 축소 필요(규제완화)

3. 향후 과제



◆ 국내 금융산업은 시스템 불안정 예방, 실물부문에 상응하는 양적·질적 육성의 필요성, 대내외 규제환경과 세계 금융시장의 재편을 감안하여 위기 이후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

1 > 시스템 안전성 강화

- 금융규제·감독 강화
- 저성장, 수익성 저하, 건전성 증대

2 > 글로벌 시장의 구조 개편

- 국제적으로 업종간, 지역별 금융시장의 중요도와 금융회사의 상대적 위치 및 구도 변화
- 선진국과의 갭 해소 노력 및 기회

3 > 잠재적 취약성 해소

- 국내 금융시장의 고유한 취약성 해소 및 예방

도약의
발판
마련

종합계획
수립 및 시행



I.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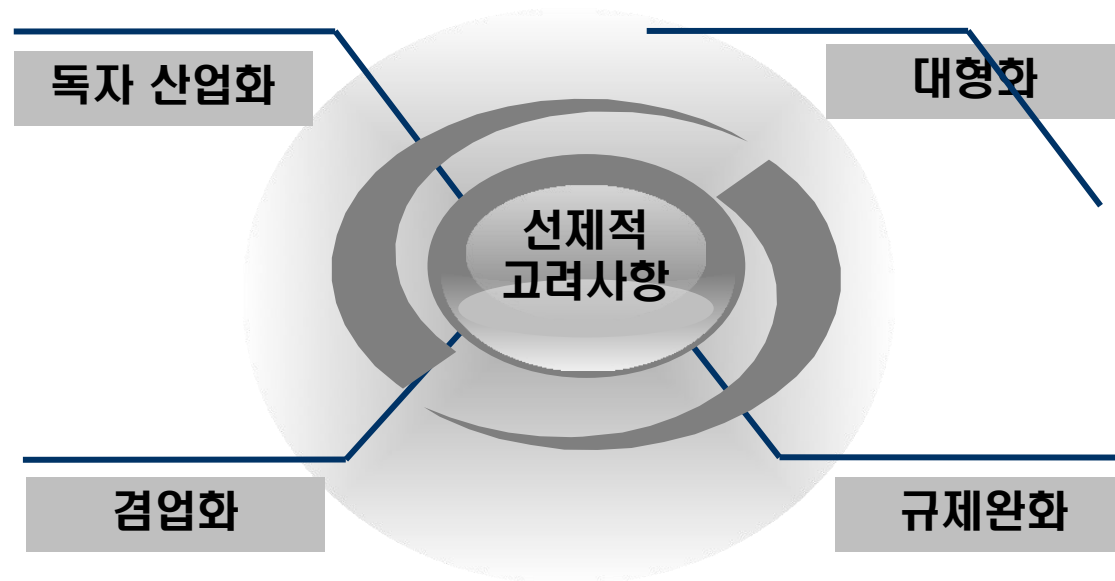
II.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

III. 정책과제

1. 금융의 역할과 평가 : 선제적 고려사항



- ◆ 금융발전 정립에 앞서 금융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금융의 독자 산업화, 대형화, 겸업화,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

1. 금융의 역할과 평가 : 선제적 고려사항(계속)



◆ 각 요인별 세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.

	고려사항	요건
독자 산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 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중요(실물과 보완관계) 충분한 실물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선진금융 단계로의 모습도 고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안정적인 금융하부구조 금융역량의 확충 금융자산 심화 및 축적 글로벌화의 실질적인 정착
대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금융회사의 대형화와 그룹화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의 확산도 초래 국내금융의 대형화는 규모·대상·범위측면에서 취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경쟁력 감안한 대형화 대형그룹의 건전성·안정성 기준·소비자 보호 강화
겸업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규제흐름은 과도한 겸업화 경계 국내 금융은 겸업화의 시너지효과 유발 초기단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스템 안정성·건전성을 고려한 선별적인 방식 필요
규제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글로벌 규제 기준의 강화 전망 국내 금융기반의 수준, 글로벌 위상, 발전단계는 선진국 금융과 격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스템 안정성, 거시건전성, 금융 소비자보호 관련 규율체계는 강화 (예: 레버리지) 금융시장의 발전 및 심화 위한 규제완화 지속 (예: 자본시장)

1. 금융의 역할과 평가 : 바람직한 역할 및 평가



금융의 실물부문 지원 기능

- 실물지원을 위한 자금중개기능 확대 노력 필요
- 직간접금융의 균형 발전 필요
기 및 벤처자금 공급 확대)

[장

신성장 동력

-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금융선진국에 비해 크게 취약(수익구조, 세계화, 금융인력 기반, 경쟁구조 등)
- 금융감독 강화를 전제로 금융의 성장동력화 지속 추진

금융소비자의 효용 만족

금융서비스 접근성

- 중소기업, 저소득층, 영세민 대상의 지원 및 확충은 필요

금융소비자 보호

- 전반적인 개선 추세
- 제도·감독·관행·인식 측면에서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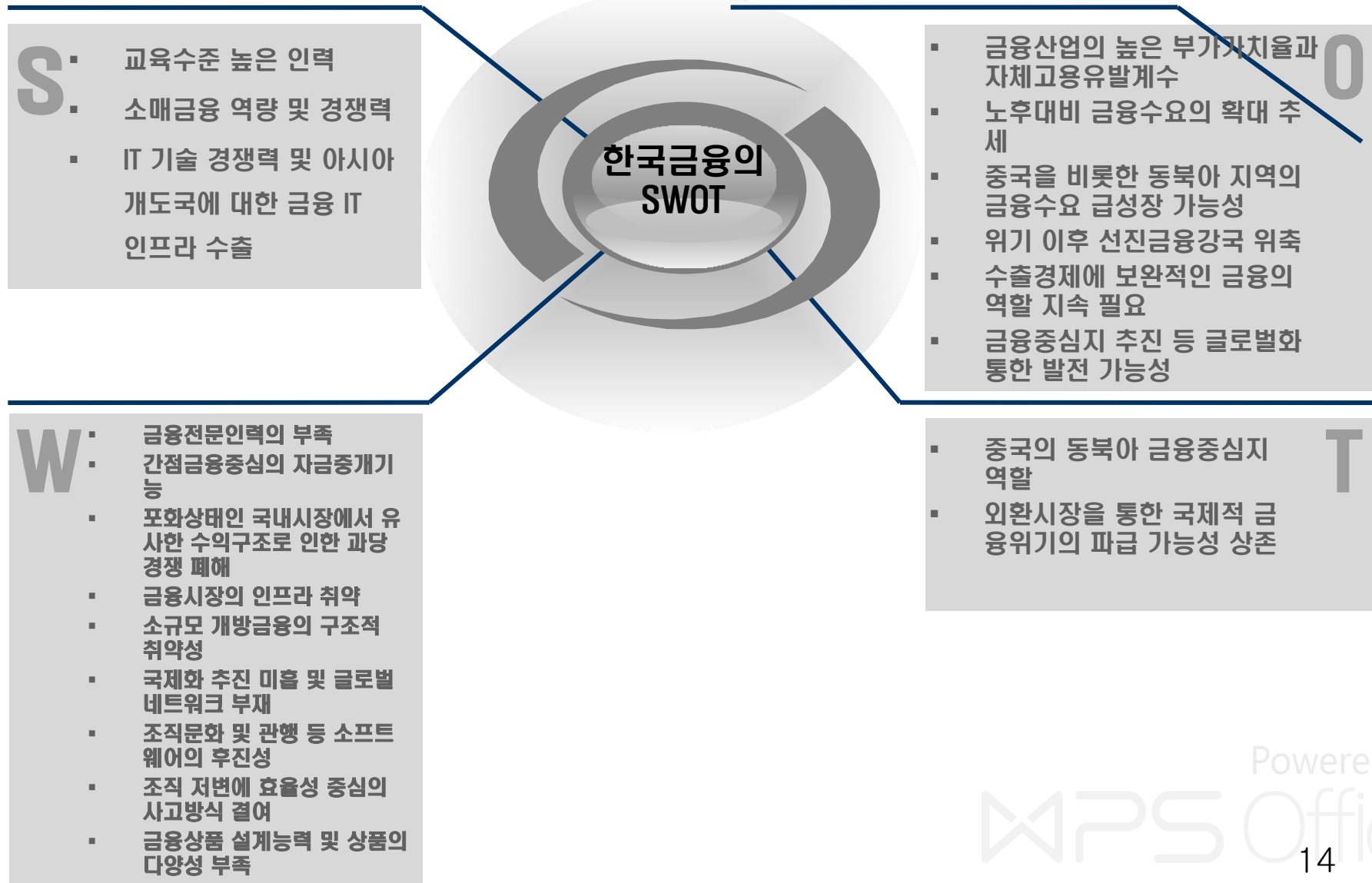
금융상품/ 서비스 기반

- 상품설계 역량 및 저소득 서민층 지원 등 인프라 확충 필요

금융시스템의 안정성

- 시스템 안정과 구조적 취약 요인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
화 및 외화 유동성 등) [원

[참고] 한국금융의 SWOT 분석



2. 국내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



- ◆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우리 금융의 취약요인을 감안하여 금융선진화를 위한 좌표를 재설정

금융강국의
발전과 시사점

금융비전과
정책과제

- 경제구조, 금융하부구조, 금융경쟁력, 금융위기 경험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성장모델 모색

- 금융비전 제시
- 5대 정책과제 제시

가. 금융강국의 모델과 시사점



◆ 5가지 금융강국의 유형을 감안할 때 글로벌형, 국내시장 기반, 위기극복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형 글로벌화를 중장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

	글로벌 주도형	지역주도형	단독국가형 (offshore)	위기극복형	위기 취약형
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border-radius: 50%; width: 40px; height: 4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margin: 0 auto;"> <p>성장 모델</p> 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G5이상의 경제권에 속하는 국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통화권 경제 영국, 미국, 독일, 홍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경제의 안정성 토대로 인접시장 및 글로벌 시장과 연계성 제고 호주, 캐나다, 싱가포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형 금융산업 유치 룩셈부르크, 스위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후속조치 북구 3국 및 칠레, 브라질 등 남미 일부 국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서비스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확대 이후 취약성 노정 아이슬란드, 아일랜드 등

- 시사점

 - 거시경제 구조, 국내 금융경쟁력의 가능성과 한계, 금융위기 경험을 종합적으로 감안
 - 글로벌 개방경제 모델과 개방경제의 취약성 보완
 - 국내시장에서의 리더십과 안정적 기반 확보
 - 위기 극복형 금융강국의 장점 활용



- 지역형 글로벌화 모색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 제고
 - 실물 부문과 연계

나. 금융비전과 정책



◆ 금융 비전은 ‘아시아의 금융리더’ 로 도약

1 단계 (5년)

- 아시아 지역 regional player
- 중단기과제 추진

2 단계 (10년)

-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과 적극적인 금융 글로벌화 (spoke 전략)
- 장기과제 추진

<참 고>

금융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목표(예시)

목표 지표	현재	2015년	2020년
▪ 금융경쟁력 지표 ¹⁾	30위권	20위권	10위권 이내
▪ 금융 및 관련 서비스업 비중	21%	23%	25%
▪ 글로벌자산시장 점유율	1.2%	2% 이상	3% 이상
▪ 아시아 top10은행의 수	0	1개 이상	2-3개 이상
▪ TNI 지수 ²⁾	4.3%	8%	15%

주: 1) IMD, WEF 금융부문 국제경쟁력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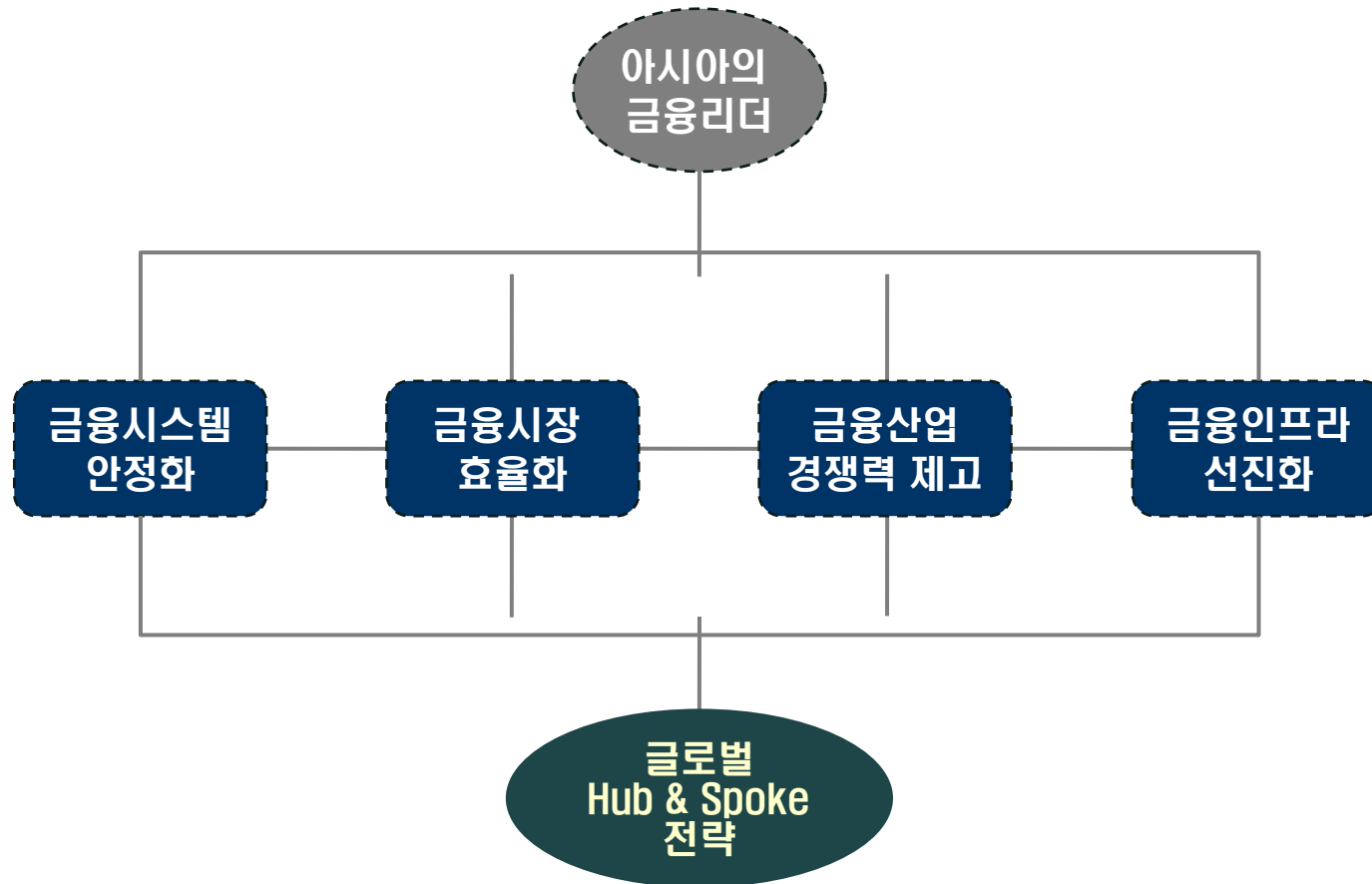
2) TNI 지수: 은행의 자산, 수익, 인력 중 해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(%)

Powered by

MPS Office

나. 금융비전과 정책(계속)

- ◆ 선진금융 도약을 위한 4대 정책과 글로벌 Hub & Spoke 전략을 추진



나. 금융비전과 정책(계속)



◆ 각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금융시스템
안정화

- 구조적 취약요인과 시스템 리스크 감독 강화

금융시장
효율화

-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기 위한 직간접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

금융산업의
경쟁력 제고

- 금융산업의 대형화 · 글로벌화 · 차별화 추구

금융인프라
선진화

- 금융산업과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· 인력 · 지원체계 재정비

글로벌 Hub &
Spoke 전략

- 금융허브 전략과 적극적 해외진출 병행

[참고] 금융의 글로벌화



현황

- 해외자본 유치에 초점
- 반면 현지화를 통한 해외진출 미흡
 - '05년 이후 펀드 위주의 글로벌화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
- 위기 이후 후발 주자로서 도약 기회 모색
 - 아시아 자산시장 성장 기대
 - 중국 • 일본 • 호주 등의 해외진출 모색



정책방향

- 인바운드 중심의 Hub 전략에서 아웃바운드를 동시에 추진하는 'Hub & Spoke' 전략
-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한 중심지 전략

금융중심지 전략

- 자산운용업과 파생상품 • 인덱스 펀드 • IT결합형의 자산시장 등 특화
- 서울-부산 중심지 간 연계강화와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체계 확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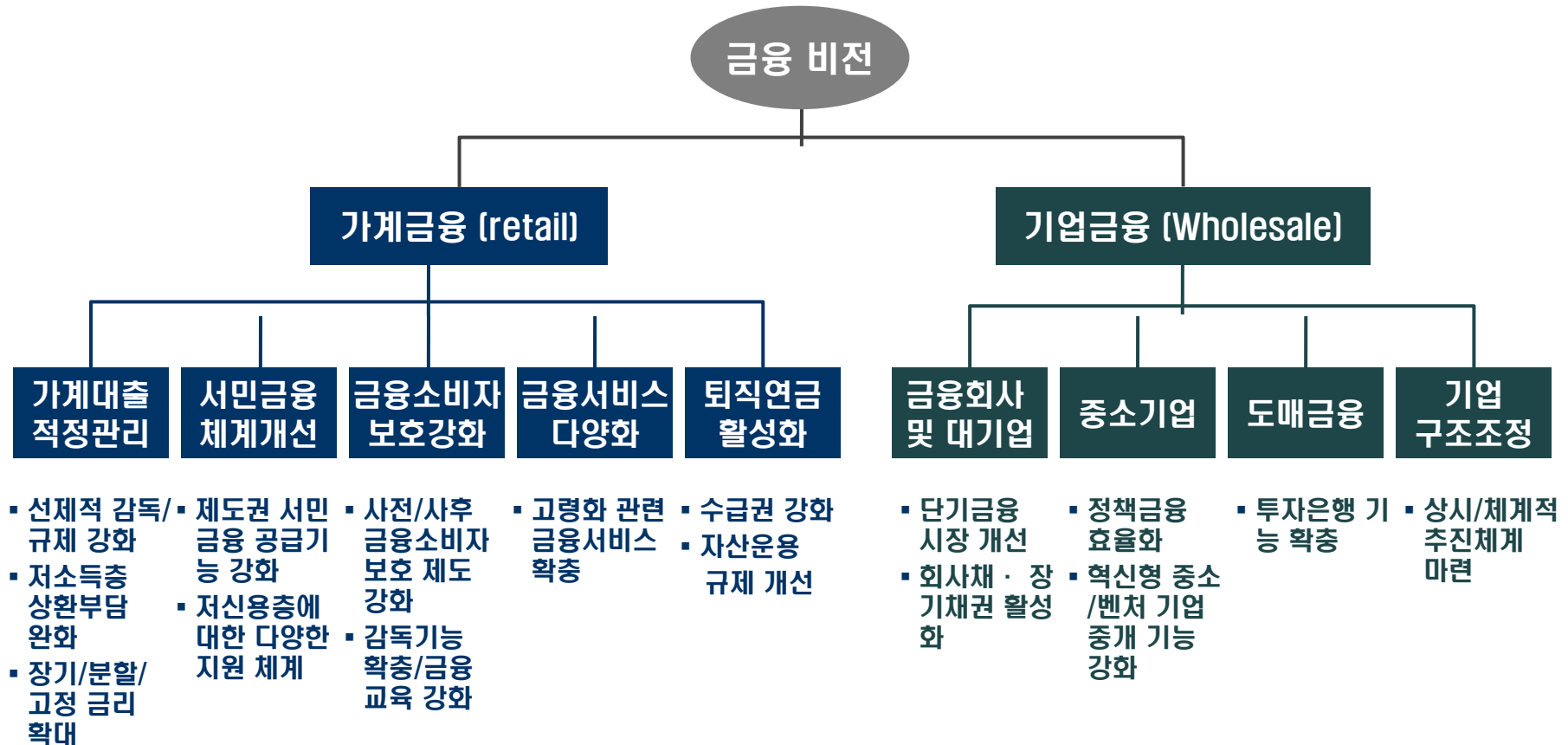
금융회사 및 금융자산의 글로벌화

- 아시아 금융네트워크 구축 (인프라 패키지 수출 등)
- 금융회사별 차별화 및 효율화 : 현지화(은행), 해외자금 조달 유치 및 중개(금융투자회사), 점진적 진출(보험)
- 부실방지를 위한 유동성 • 건전성 감독은 지속
- 금융자산 글로벌화는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안정성, 글로벌 역량, 해외자산 관리체계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추진
 -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거시감독 강화
 - 기관투자자와 연계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계획 마련

다. 금융수요자 측면에서 본 비전의 기능별 체계



◆ 금융비전 달성을 위한 가계 및 기업금융의 체계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.



[참고] 고령화 대비 금융의 역할 제고



- ◆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여건을 조성하고, 고령화 금융상품 수요 확대를 위한 수급권 강화와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함.

현황

고령화 추이와 전망

-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를 상회
- 노령화 지수는 2020년 미국·영국을 상회하고 2050년에 일본·독일을 추월할 전망
- 반면 금융자산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은 아직까지 미흡
 -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률이 각각 30%·5% 수준에 불과(추정)

고령화와 금융서비스 니즈

-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 진입으로 연금 및 장기저축 수요 증대에 대비
- 연금, 건강·간병 등 고령화 관련 서비스와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비
- 자산관리 및 은퇴설계에 대한 체계적·맞춤형 서비스 확충 필요

정책방향

-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등장 여건을 조성
 - 각종 연금, 보장형 신탁, 장기펀드, 보장성 보험 등 고령화 상품 출시 유도
 - 신탁·보험 등 연계형 복합금융상품 개발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검토
 - 장기국공채, MBS, 물가연동채 등 장기채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
- 고령화 관련상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판매채널 선진화와 소비자 보호 강화
 - 종합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채널 체계를 재검토
 - 금융자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격요건과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
- 노후생활에 대비한 금융교육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
 - 금융교육의 체계화와 강화를 통해 금융 지식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
 - 연금형 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



I. 금융환경의 변화와 과제

II. 금융의 비전 및 발전방향

III. 정책과제



1. 금융산업의 경쟁력

가. 은행산업

나. 금융투자산업

다. 보험산업

라.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

가. 은행산업: 구조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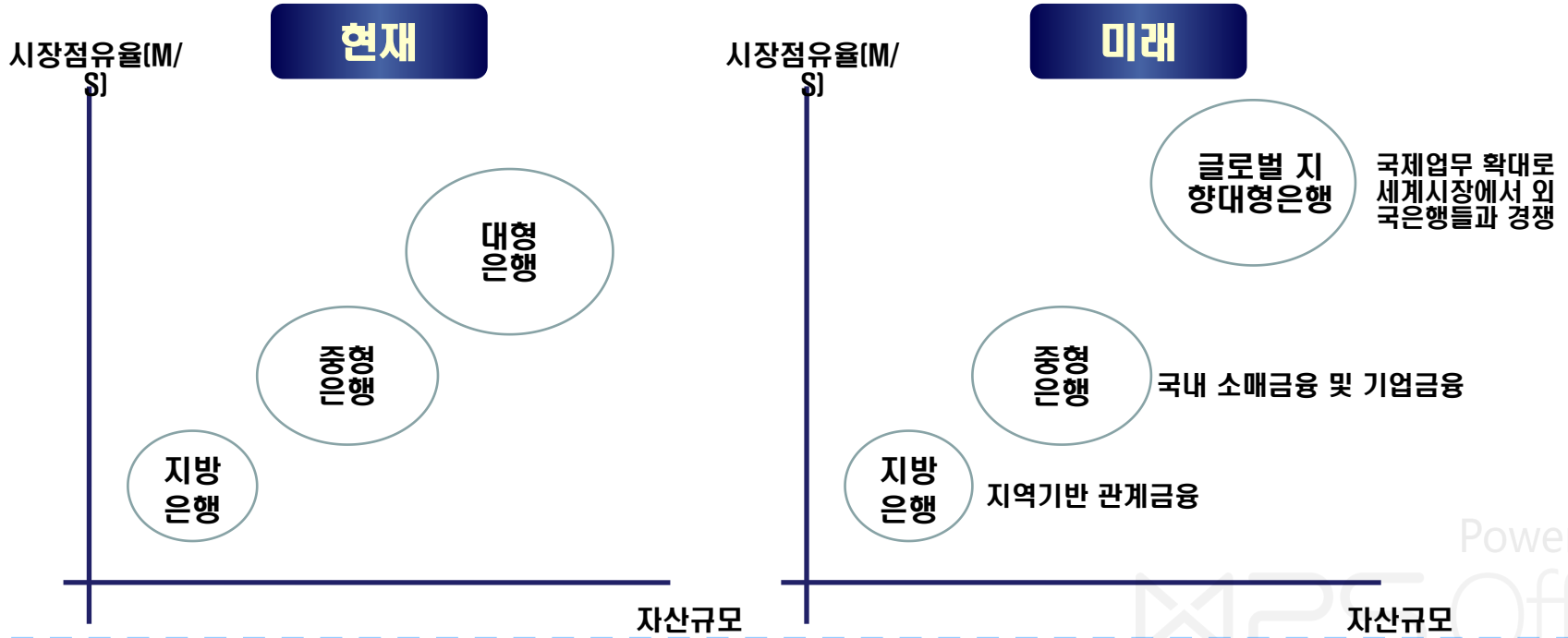


대형은행 :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아시아 리딩뱅크 출현

중형은행 : 국내 소매금융 및 기업금융 업무에 주력

지방은행 : 지역기업 및 고객 등을 중심으로 관계금융 강화

은행업 구조의 변화



가. 은행산업: 단기과제



정부소유 은행 민영화 추진

- **우리지주회사 민영화 우선 추진**
- **산은은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 후 민영화**

은행의 안정적 성장 유도

- **경영효율화 노력 강화**
- **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속 추진**
- **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정교화**
- **국제적 자본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내부유보 확보, 보통주 증자 확대 등 자본의 질 제고**

새로운 수익원 발굴, 저원가성 수신기반 강화 등 수익기반 확충

- **펀드판매 관련 소비자 신뢰 회복**
- **안정적 수신기반 확보 지원**

가. 은행산업: 중장기과제



은행의 안정적 성장유도 및 수익기반 확충

- 신용평가기준 개선, 대출심사자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신용평가능력 제고
- 영업이익경비율(cost-to-income ratio) 개선
- 복합직군제 도입으로 인력 전문화

국내은행 '글로벌화'의 내실있는 추진

- 해외진출 은행의 현지화 촉진 등 해외진출 적극 지원
 - 제조업 기진출국 등 제조업과 동반진출 방식 활용
 - 해외진출시 컨소시엄 구성, 합자 방식 등 현지은행과 공조체계 구축
 - 국내은행은 해외진출에 앞서 핵심역량 강화로 국제경쟁력 강화
 - 해외진출 대상국 및 진출업종의 신중한 선정으로 실패현상 완화
 - 효과적 현지화를 위해 단계적 현지화 전략 추진
- 정부는 진출지역 금융당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
-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관리 강화



1. 금융산업의 경쟁력

가. 은행산업

나. 금융투자산업

다. 보험산업

라.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

나. 증권산업: 발전 방향

◆ 국내외 시장을 아우르는 대형사가 출현하고 특화 중소형사가 다수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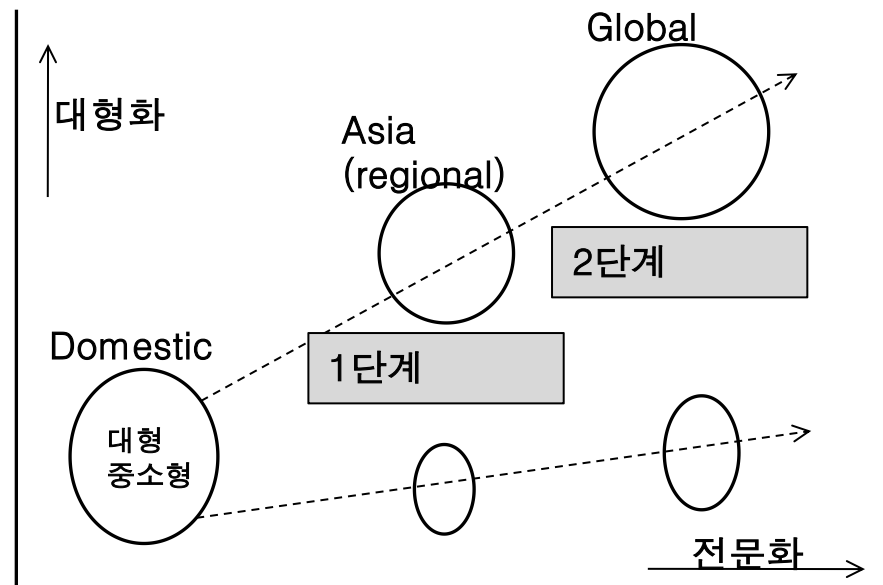
- 대형사는 자본증강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, 점차적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글로벌 회사로 성장; 중소형사들은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니치 플레이어로 활동

현재

- 대형사의 위험인수 능력 취약
- 중소형사 차별화 부재
- 활동영역이 국내시장으로 제한

미래

- 소수의 대형사와 다수의 중소형사로 분할
- 자본력을 갖춘 대형사 출현
- 작지만 강한 중소형사 등장
- 활동영역이 해외로 확장



나. 증권산업: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



◆ 단기과제

- 대형 증권사 출현을 촉진
 - 정부소유 금융그룹 매각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대형사 출현을 도모할 필요
- 진입정책을 통해 기존 중소형사의 특화전략 추진을 유도
 - 특화 증권사의 진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경쟁적인 여건을 마련
- 헤지펀드 도입에 대비해 Prime Broker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

◆ 중장기과제

- 경쟁력 있는 대형 증권사가 되기 위한 인프라 구축
 - 트레이딩 부문의 고도화,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, 리서치 조직의 강화, 이해상충 방지 체계 마련,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
- 자체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바, 아시아시장 선도를 위해 현지 및 해외 증권사 인수 추진
- SPAC, PEF, 헤지펀드 등 증권산업의 업무영역 확대에 필요한 제도 활성화
- NCR규제 개선과 함께 레버리지 규제 도입

나. 자산운용산업: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



◆ 단기과제

-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 촉진: 특히 특정부문에 전문화된 운용사 진입은 적극 허용
-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해 판매시장의 경쟁 촉진
- 판매채널 및 판매인력의 자격요건 강화: 특히 재무설계(FP)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제 마련
- 펀드관련 정보공시 강화

◆ 중장기과제

- 대형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: 위험분산, 고성장 국가의 성장과실 향유, 강력한 정보네트워크로 활용
- 개인연금, 퇴직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성장기반 강화
- 헤지펀드,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일원화: 시장혁신을 수용함과 동시에 규제공백 해소



1. 금융산업의 경쟁력

가. 은행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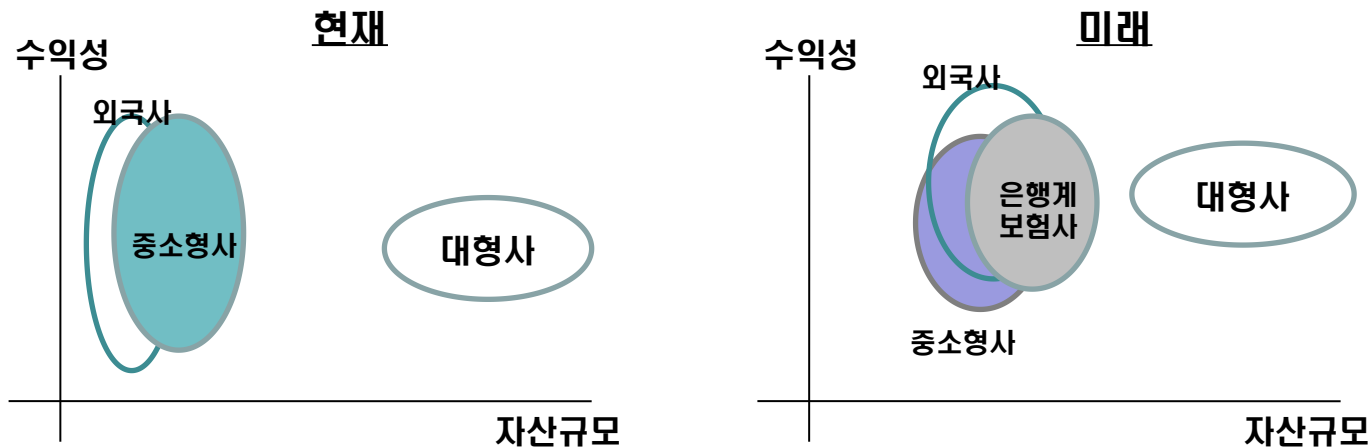
나. 금융투자산업

다. 보험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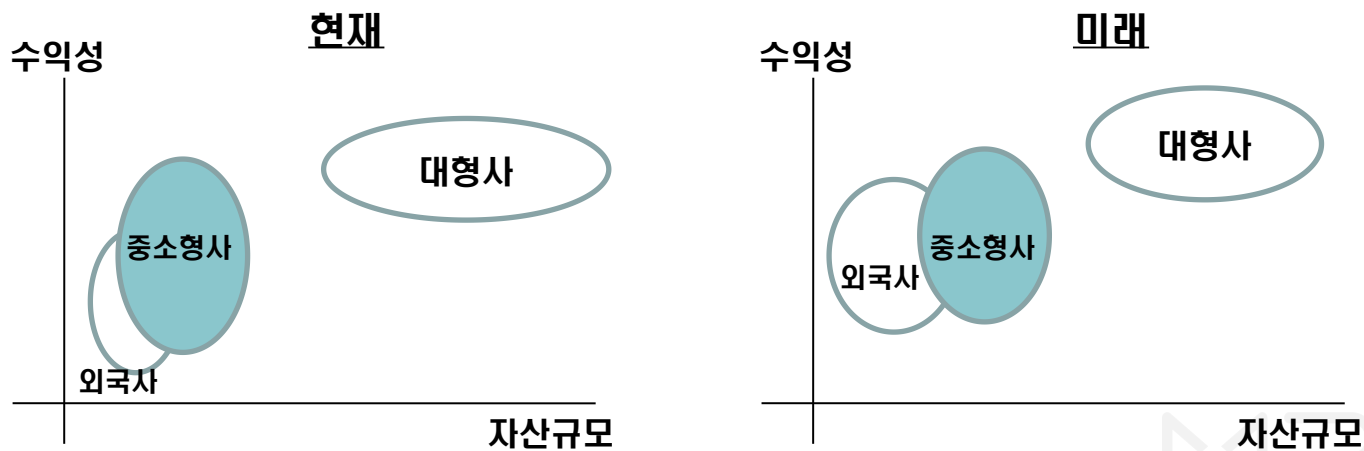
라.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

다. 보험산업: 구조변화

- ◆ 생명보험산업 : 은행계와 외국계 비중 상승, 대형사는 해외비중 확대



- ◆ 손해보험산업 : 대형사 중심의 산업구조 강화 가능성



다. 보험산업: 정책과제



◆ 사회적 신뢰 제고

단기

- 불완전판매 축소를 위해서 과당경쟁 해소, 보험모집조직의 자기책임 강화, 보험소비자교육 강화 등의 조치 시행

중장기

- 보험약관의 지속적 개선, 보험금 지급기준의 객관화
- 장애인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, 고령자 등을 위한 간이심사보험 개발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 취약계층 보험가입 지원

◆ 신성장영역 확충

중장기

- 퇴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, 건강보험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민영보험의 사회보장기능 강화
- 배상책임보험, 비용보험 등을 중심으로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 방안 강구
- 적극적 해외 M&A전략을 통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자본확충,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
- 타금융 분야로 수익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, 건강관리, 장기요양 등 보험사업과 관련된 부수사업영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

다. 보험산업: 정책과제(계속)



◆ 보험제도 및 인프라 확충

단기

- 보험학계, 연수기관, 보험업계가 연계된 총체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제공
- 대형 독립대리점과 금융기관대리점의 판매자책임 강화 및 영업보증금 수준 인상, 선지급수당제도 개선
- 모집종사자의 자격요건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, 비대면 모집조직에 대한 규제 강화, 불안전 판매율이 높은 모집조직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
- 부실모집경력이 있는 모집종사자 별도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 운영
- 보험사기죄 신설 및 보험사기인지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
- 국제적 감독정책 공조를 강화하고, 해외보험시장정보 체계적 수집 방안 마련

중장기

- 자율규제능력 확충 및 공적규제와의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한 규제공백 발생 방지
-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격제도를 개편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
- 보험정보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 정비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이용의 효율성 조화
- 보험중개사 등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거래를 중개하는 조직의 활성화
- 자문수수료 방식으로의 수당체계의 개선 및 보험모집 수수료 공시제도의 단계적 도입



1. 금융산업의 경쟁력

가. 은행산업

나. 금융투자산업

다. 보험산업

라. 비은행산업 및 서민금융

라. 저축은행: 경쟁력 강화



정책방향

“무리한 자산확대를 억제하는 가운데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
서민금융시장에서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체제”를 구축

- 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활용한 자산확대 억제
-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
 - 경영지도기준 및 Tier 1 자본비중 상향조정
 - 상시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소유분산을 유도
-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 제한
-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업무 강화 유도
-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개선 유도
- 신규진입 등을 통한 부실 저축은행 M&A 활성화
- 중앙회의 자율규제 및 자원공유 기능 확대

라. 상호금융기관 및 여신전문금융기관: 경쟁력 강화



정책방향

● 금융서비스 기반 확대

- 연합회 및 중앙회 중심의 자산운용업 진출 단계적 허용
- 조합 예대율 하한 규제(ex : 70%)를 도입하여 중앙회 비대화 방지
- 중앙회 자회사의 투자 및 자산운용상품 판매 등으로 조합 수익성 제고

● 회원조합 운영체제 개선

- 1기초자치단체당 1조합 원칙의 합병추진
- 내부유보를 통한 조합자본금 확충
- 조합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체제로 전환

● 회원조합에 대한 중앙회 및 연합회의 감독 강화

정책방향

● 신용카드업과 기타 여전업을 구분

할부금융, 시설대여, 신기술사업금융 및 소비자 금융업을 묶어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

● 업무영역 규제를 포괄주의로 전환

● 직불 및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
- 직불 및 체크카드의 결제범위 확대

[참고] 서민금융체계 확립 및 서민금융 활성화



● 금융공급의 계층구조 확립

	현행	개선방안
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IMF 위기이후 위험관리 강화 · 평판위험(Reputation Risk) → 은행권 서민금융 부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회사 방식으로 소비자금융에 진출
저축은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외형확대 경쟁 · PF 등 고위험 대출 · 예보제도에 의존한 수신경쟁력 →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위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과도한 자산확대 억제 · 소액대출평가시스템 개발 유도 → 지역기반 서민금융에 주력 · 중앙회의 종합여신금융업 진출
상호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여신심사역량 부재로 낮은 예대율(중앙회 재예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소액 신용대출상품 공동개발 등을 통해 조합원 신용대출 확대
여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동차리스 등 위주로 영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여신금융업을 신설하여 서민금융 확대 유도
대부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민금융시장 공백을 계기로 규모 확대 및 소비자피해 급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시장규모 축소 유도 · 대형 대부업체는 소비자금융업으로 전환 검토

●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계층구조 보완

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활동능력이 없는 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복지정책으로 접근
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현재 경제활동능력이 없지만 미래의 경제활동 능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미소금융 등 대안금융
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제활동능력이 있으나 기존채무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금융공급이 어려운 집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용회복 지원제도



2. 금융제도의 발전

가. 건전성 규제 및 감독



이슈

- 자본건전성 강화
- 유동성 규제
- 레버리지 규제
-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
- 은행세



정책방향

- 향후 BCBS, FSB 등의 논의, 각국의 영향분석(QIS)를 통해 국제적 최종 합의안 도출 예정
- 우리나라도 영향분석, FSB논의 참여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

나. 예금보호제도

이슈

- 예금보호 및 비보호 대상 상품 나열
- 영업정지 이후 예보의 정리절차 시작
- 단순보험금지급(pay-box) 형태의 예금보호제도
- 기금손실 발생 위험도에 무관한 권역별 동일 보험료를 적용

- 상호저축은행 계정 손실 2조원 이상 확대
- 예금수취기관과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호방법 적용
- 업무인가 시 예금보호대상 자동 편입

정책방향

- 예금보호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
- 적기시정조치 부과 시부터 정리절차에 예보 조기 참여
- 사전 및 사후 위험시정조치 기능 강화
 - ✓ 차등보험료율제도 조기 시행

- 상호저축은행업권 예금자, 금융회사, 감독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
- 금융업별 보호 방법 및 한도 차별화
-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 가입 승인 및 적용 종료제도 도입

다. 금융감독 및 지급결제제도



이슈

- 거시건전성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
- 권역별 감독체제의 부작용 노정
- 수요자 위주의 시각이 부족



정책방향

- 체계적 거시건전성 감독시스템 마련
- 기능별 감독체제로 전환
- 소비자 보호 강화

이슈

- 개별법으로 지급결제사항을 규율



정책방향

- BIS 핵심원칙을 반영한 체계적 규제 · 감독시스템 확립
 - ✓ 지급결제 감시·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

라. 정책금융 및 금융소비자 보호



이슈

- 정책금융기관 역할재정립에 대한 요구
- 상업금융기관과의 경합이나 불공정경쟁 시비에 노출
- 정책금융 관련부처간 연계가 미흡



정책방향

- 정책금융간 역할 분담 내지 협력방안 마련
-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금융회사간 유기적 지원체계 마련
- 순수정책금융 기능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

이슈

- 업권별 규제수준 상이
- 사후적 실효성 부족
- 금융교육이 비체계적
- 감독자원이 충분히 소비자보호에 배분 되지 못함



정책방향

- 일관적·체계적 규제 체제 마련
- 검사·제재 및 민원·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
- 상시 금융교육 제공 방안 마련
-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 보강

마. 신용평가/정보 및 녹색금융



이슈

- 신용평가의 신뢰성, 이해상충, 과점체계, 등급산정의 불공정성, 규제미비 등의 문제가 제기

정책방향

- 신용평가업에 대한 규제·감독 강화
- 신용정보 수집 채널 확대 및 분석능력 제고
- 신용정보법과 신용평가법으로 분리

이슈

- 지원여건이 미성숙
-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 저하 및 버블 가능성도 존재
- 부실 발생에 따른 감독소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

정책방향

- 지원기준, 리스크관리기준을 마련
- 보증우대 등으로 민간대출 규모 확대
- 녹색산업주가지수 개발, ETF 상장 유도 등

바. 금융전문인력 및 금융지주회사 체제



이슈

- 금융전문인력의 부족
- 인력수급조사 미흡
- 금융전문인력 교육기관 미흡



정책방향

-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력 양성
- 인력과부족 현황 조사
- 자산운용특화 교육기관 육성 등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유도

이슈

- 복합금융그룹 국내 감독체계는 여전히 취약한 편
- 시너지 창출이 미흡



정책방향

- 규율체계 정비
 - ✓모자회사그룹, 외국계 그룹, 금산복합체
 - ✓중복비용 절감 목적의 자회사 설립요건 완화
 - ✓연결납세제도의 정착



3. 금융시장의 효율화

가. 단기금융시장 및 파생상품시장



정책방향

- RP, CD 시장 활성화
- CP 시장을 단기사채시장으로 개편
- 기간물 RP, CD 시장 활성화
- 한국식 LIBOR 등의 개발 유도

장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

- 주가지수 파생상품의 경쟁력 유지
- 실물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

장외 파생상품시장 개선

- 장외파생상품 중앙집중거래소(CCP) 청산소, 중앙거래정보저장소, 전자거래 플랫폼 도입 추진

나. 주식시장



정책방향

기업 상장 활성화

- 상장부담 완화를 통해 우량기업 상장유인 제고
- 공시 회계부담 등 상장부담을 지속 완화

상장기업의 책임성 강화

-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상습적 불성실 공시와 조회공시 허위답변, 미확정답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관련 별점체계 개편

주식관련 신상품 확대 및 투자 행태 개선

- 우량 비상장기업의 SPAC을 통한 상장 및 구조조정 활성화 도모

유가증권 코스닥시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

- 유가증권시장은 아시아 대표적 자본시장으로 발전
- 코스닥시장의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기지화

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강구

- 매매수수료 결정체계에 대한 검토
- 일부가격대의 호가단위 개선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마련
- 대량매매시스템 도입

다. 채권시장



정책방향

효율적인 발행시장 구축

-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
- 제1금융권 위주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자본시장으로 다변화

채권 수요기반의 확대

- 채권형펀드 및 고수익채권펀드 활성화

채권 유통시장의 개선

-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의 정착
- ATS 도입

금융투자회사의 채권 인수기능 활성화

- 채권의 딜러기능 활성화와 연계
- 주관사의 책임성 강화

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주도

- 장기채권시장의 활성화 유도

라. 자산유동화 및 구조화증권 시장



정책방향

ABCP의 공시강화 등 감독방안 마련

- 단기적으로 ABCP 공시 강화 및 중장기적으로 단기사채제도에 편입

국내 자산유동화증권 제도의 개선

- 장기적으로 “자산유동화 및 구조화증권 발행법(가칭)” 으로 전환

구조화채권에 대한 공시 및 감독방안 구축

- 구조화증권에 대한 감독강화 및 신용평가 공시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



EOD